

백신의 힘...코로나 그늘 벗어나는 미국

확진자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백악관 내달부터 사무실 근무 항공기 여객 팬데믹 이후 최대 거의 모든주 마스크 의무화 해제

미국이 백신 접종을 앞세워 정상으로 복귀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최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작년 3월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으며, 백악관은 내달부터 사무실 근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메모리얼데이(미국의 현충일) 연휴 기간 항공기로 여행한 사람의 숫자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작 뒤 최대치를 기록했다.

CNN방송은 존스홉킨스대학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 7일간의 미국 내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 7248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보도했다. 팬데믹 초기인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하루 확진자가 30만310명에 달하며 정점을 찍은 올해 1월 2일과 견주면 10분의 1 이하로 줄어 들었다. 이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인명 손실과 고통 끝에 온 놀라운 이정표라고

CNN은 평가했다.

미국에서는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바 있다.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늘면서 봉쇄령이 선포됐고, 전 인구의 80% 이상에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다. 1일까지 존스홉킨스대가 집계한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3326만 5000여명, 누적 사망자는 59만 4000여명이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과의 전투에서 강력한 동맹인 백신 덕분에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일까지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중 62.8%가 최소한 1회 백신을 접종했고 51.7%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 또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50.8%가 최소한 1회 백신을 맞았고, 40.9%는 백신 접종을 끝냈다.

독립기념일(7월 4일)까지 모든 성인의 70%가 백신을 최소한 1회 맞도록 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이미 달성한 주도 12곳이나 된다. 캘리포니아·메릴랜드주가 최근 합류했다.

많은 주(州) 정부가 방역 규제를 완화했고, 캘리포니아주 등 몇몇 주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했다. 백악관은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다음 달부터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했다.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행정실은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다음 달 6일부터 23일 사이에 사무실 근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알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백악관도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는 재택 등 원격 근무로 돌렸다.

또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항공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최대 수준을 찍었다고 CNBC 방송 등은 보도했다. 미국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하루 평균 178만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텔 숙박객도 팬데믹 이후 가장 많았다. 힐튼의 크리스토퍼 나세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메모리얼데이 연휴였던 지난 달 29일 미국 내 힐튼 호텔 객실 점유율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좋은 93%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세타 CEO는 "우리는 '대박 주말'을 보였고, 올해 여름 예약률은 2019년 성수기 때보다 더 높다"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여행하기 정말로 좋은 여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로나 사망자 0명 기록한 영국 1일(현지시간) 영국 남부 브라이언 해변이 물러는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영국에서는 이날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3165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우리 기사님 접종 완료”...태국 ‘백신 택시’ 등장

태국의 한 택시 업체가 ‘백신 택시’라는 아이디어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타이PBS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콕 인근 논타부리주에 본사를 둔 택시 호출업체인 ‘스마트 택시’는 최근 자사 소속 택시 두 대에 독특한 디지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택시들 지붕에는 초록색 LED로 ‘백신’ 또는 확인표시(✓) 옆에 ‘코비드’라는 글씨가 영어와 태국어, 중국어

로 표시된다. 이 택시를 몰고 있는 기사는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접종했다는 뜻이다. 기사가 코로나19 백신 2회차 접종까지 마치면 접종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그러면 회사는 운전사 필요한 신분증에 백신 2회 접종 완료 사실을 입력해 준다. 택시 기사가 그 신분증을 스캔하면 백신 또는 코비드라는 디지털 표시가 작동하게 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아이디어를 낸 피셔 틴나크 나야우타야이라는 승객들에게 택시를 타는 데 안심하도록 하고, 택시 기사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하도록 독려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안심하고 탈 수 있다는 생각이 손님들이 더 많이 선택하면서 두 택시의 기사는 각각 평균 하루 600번(2만여원)으로 수입이 늘었다고 업체는 전했다.

백신 2회 접종을 마치고 ‘백신 택시’를 몰고 있는 한 기사는 손님들이 백신이라는 글씨가 적힌 택시를 타면서 더 안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 전문가회의 대표 “올림픽, 의료부담 키운다”

내각위원회 출석 우려 공개 지적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문가회의 대표가 올림픽이 의료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오미 시게루 코로나19 대책 분과회 회장은 1일 일본 참의원 내각위원회 등에 출석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4단계일 때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면 의료 부담이 가중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미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올림픽을 개최하면 “더욱 부담이 가해질 위험이 있는 것은 모두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올림픽 개최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 감염 위험을 지적할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분과회에 속한 감염증이나 의료 전문가들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이같이 소개했다. 오미 회장은 올림픽 개최로 국내 이동이 활발

해져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많은 시민에게 현(縣) 경계를 넘어 움직이지 않는 것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아베 신조 내각 시절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국민 기자회견에 총리와 나란히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했으며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후에도 이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전문가로서 얼굴을 알린 오미 회장이 코로나19 경보 4단계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일본 정부의 대응이나 여론의 변화가 주목된다. 4단계는 일본 보건 당국 분류상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해당하며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발령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일본에는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도쿄도 등 10개 지역에 긴급사태가 발효돼 있다. /연합뉴스

‘살인마’ 이탈리아 마피아 25년만에 석방

100명 넘게 살해...유족들 분통

검찰 수사 협조해 감형 후 출소

이탈리아에서 마피아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폭탄 테러로 살해한 것을 포함해 극악한 범죄로 복역 중이던 마피아 두목이 25년 만에 풀려났다.

이탈리아 사칠리아 마피아 출신인 지오반니 브루스카(64)는 ‘돼지’ 또는 ‘살인마’라는 별명으로도 통했으며, 10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지어 그는 1993년 11세 소년을 납치한 후 살해하고 사신을 산성 용역에 담아 없애기도 했다. 복수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소년은 조직을 배신한 다른 마피아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브루스카는 마피아 사건을 집중해서 맡았던 지오반니 팔코네 판사와 부인, 그리고 경찰관 3명을

살해한 지 4년 만인 1996년 체포됐다.

고속도로에 미리 400kg에 달하는 폭발물을 설치한 뒤 팔코네 판사의 승용차가 지나갈 때 터뜨렸고, 이 혐의로 체포된 브루스카는 중상형을 선고 받았다. 거물급 두목 토도 리나의 최측근이었던 그는 두목이 사망하자 조직을 물려받았다. 그가 석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감 중이던 2000년부터 범죄 조직인 코사 노스트라에 대한 수사에 협조해 감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브루스카는 검찰에 협조하면서 “나는 평생 코사 노스트라에 조직원으로 일하면서 150명 이상을 살해했다”며 “죽은 사람의 이름조차 모두 기억하지 못하겠다. 나는 짐승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브루스카가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 가족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우려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연합뉴스

결혼식 직후 남편의 전 부인에 신장 기증 화제

미 플로리다주 50대 “우리 자매”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50대 여성이 결혼식을 올리고 이틀 뒤 남편의 전 부인에게 신장을 이식해 줬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오칼라에 거주하는 데비 닐스트리랜드(56)는 최근 남편 짐 머스의 전 부인인 밀레인 머스(59)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내어줬다. 오랜 기간 신장병으로 투병한 밀레인은 작년 11월 입원했을 당시에는 신장 기능의 8%만 정상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데비는 짐과 결혼하기 전부터 밀레인과 가족

모임에서 만난 뒤 스스럼없이 지내며 우정을 쌓아왔다. 이혼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짐과 밀레인이 슬하의 두 자녀를 함께 돌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데비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누군가에게 장기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장기기증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고 말했다.

한쪽 신장을 떼어 준 데비와 이식을 받은 밀레인은 수술 후 이식을 회복하자마자 곧바로 상대방을 애가게 찾았다. 결국 남편 짐이 신부를 휠체어에 태운 뒤 자신의 전 부인의 병상으로 데려다줬다고 한다. /연합뉴스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2020년 출자금

3.0% 배당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저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